



## 코람뉴스 (2021 년 11 월)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

#### 지구온난화란 무엇인가?

지구온난화란 간단히 말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즉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는 지표면의 열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필요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상 기온,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인류가 19 세기 산업화 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의 온도와 기상변화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1880 년부터 1980 년까지 100 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0 년마다 평균 0.07 도씩 상승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1981 년부터 이 상승 폭은 배 이상 증가해, 지난 40 년간, 지구의 온도는 10 년마다 평균 0.18 도씩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구는 단 한번도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과학자들은 자연적인 현상 외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것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태양 광선의 하나인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하는 성질이 있으며, 온실가스는 영어로 'Greenhouse Gas'라고 하며, 농작물을 재배할 때 인위적으로 적정 온도를 만들어주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것처럼, 온실가스도 생명체가 살기 적당하게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온실 효과가 있다. 만일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추운 행성이 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 과도하게 배출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결국 가뭄, 홍수, 이상 고온 등의 기후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 대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석탄이나 석유를 연료로 사용할 때 나오는 기체인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 지구온난화 현상으로는;

폭염, 폭우 같은 극단적인 이상 기후로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생태계마저 파괴되면서 미래 인류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된다.

덥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늘어나며,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인류의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극지방이나 산간지대 빙하가 녹게 된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북극곰이나 남극 펭귄 등 동물들의 서식지도 사라지지만, 인간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각종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섬들이 사라지고 해안 지역이 유실되면서 인간도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바닷물이 더워지면서 각종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고, 이 역시 인간의 먹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 월 화상으로 주최한 기후 정상회의에서 오는 2030 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 년 대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며 중국, 인도 등을 압박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다.



### **알림**

♣ **썸머타임 해제(Daylight Saving Time Ends) 11 월 7 일입니다. 일요일**

**새벽 2 시에 시계를 1 시로 돌려 놓으셔야 하지만, 토요일 저녁에 미리 돌려놓고 주무세요.**

♣ 11 월 10 일 수요일 오후 2 시 30 분에는 발닥터 김선웅님의 코람 방문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은 시간에 맞추어 1 층으로 내려오세요.

♣ 2022 년 수입증명 : 매년 11 월말이나 12 월초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다음해의 수입에 대한 편지가 옵니다. 일년내내 필요한 서류이니까 잘 챙겨두세요.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가져 오시면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 서비스 코디네이터, 김옥경의 휴가는 11 월 15 일부터 24 일까지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사무실 출근은 29 일부터입니다. 그러나 휴가중에 사무실에 한번은 나올 예정이니, 받은 편지들은 사무실 우편함에 놓으시면 전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3차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서:

FDA (연방 식품 의약청) 의 발표에 의하면, 65 세 이상 &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3 차 백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약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므로, 2 차 백신을 맞은 날로부터 6 개월뒤에는 의사와 상담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맞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예약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2 차 백신으로, 4 월 8 일 코람 백신행사에 동참하신 분들은 3 차 백신 행사가 11 월 30 일 오후 2 시에 예정되어 있으니, 미리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알려주세요.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 독감 주사인 FLU 백신과는 2 주간의 차이를 두고 맞는 일정을 조절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차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백신카드를 지참해주세요!!

## 유머 한마당!!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께 엄치없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나이 먹고 일하기도 힘들고 해서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을 아주 적은 마진으로 특별 판매하는 것이니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한 세트씩 주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한 제품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 이라는 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니까요.

- 입술에는 ‘침묵’ 이라는 고운 빛의 립스틱을 발라 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 잡아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진실’ 이라는 아이 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크림을 소지해야 한답니다.

-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시면 ‘미소’ 라는 로션을 바르면 되구요.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며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하루로 인해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화장품은 ‘성실’입니다.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미안’이 최고라고 합니다. 아,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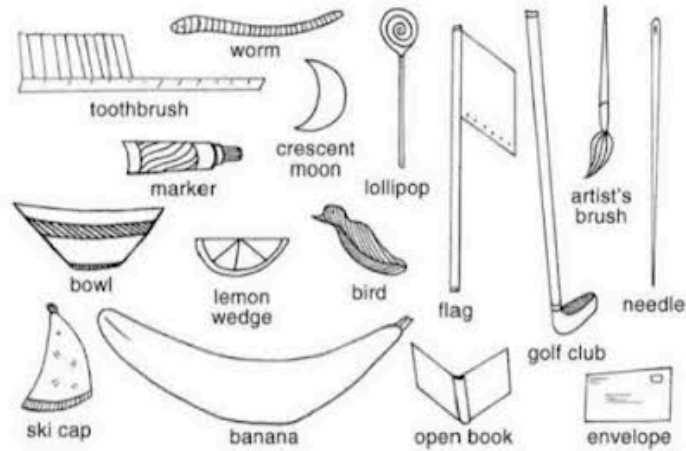
- 가장 향기로운 향수로는 ‘용서’가 제일입니다.

분명 마음에 드실 꺼예요. 한 세트씩 꼭 구매해 주실거죠? 품질은 제가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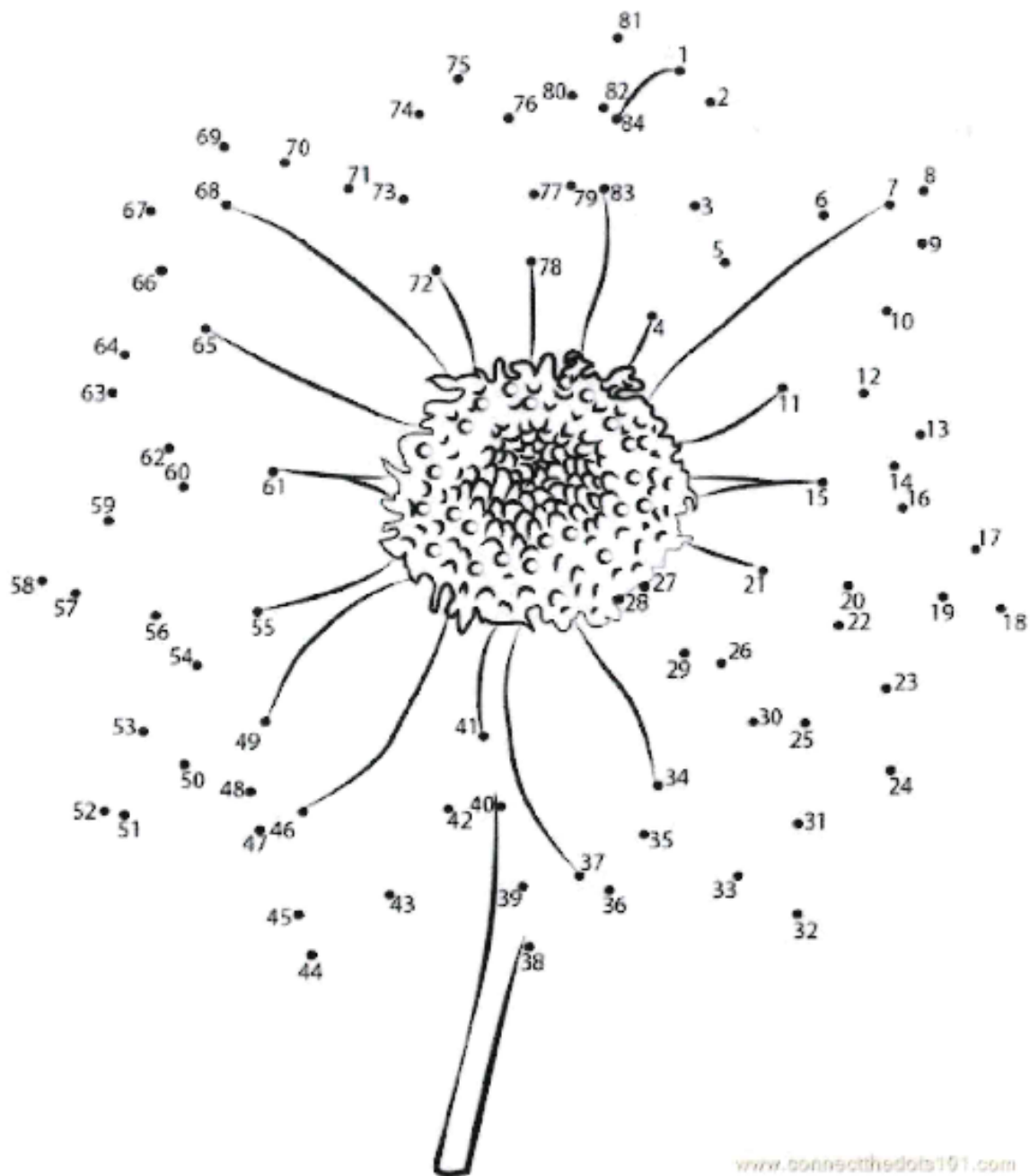


주문하실 주소 : 당신도 예쁘 군 사랑하면 좋으리 1004 번지





숨은그림 찾기 : worm (벌레), toothbrush (치솔), marker (마커), crescent moon (초승달), lollipop (막대사탕), bowl (밥그릇), lemon wedge (레몬모양의 문고정조각), bird (새), ski cap (스키용 털모자), banana (바나나), flag (깃발), golf club (골프채), artist's brush (화가용 붓), needle (바늘), open book (열린 책), envelope (봉투)



**\*\*1 번부터 84 번까지 연결해 보세요..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 11 월 생신을 축하합니다. \*\*\*\*\*

최경준님 (401 호, 20 일), 최기현님 (212 호, 19 일),  
김인정님 (403 호, 5 일), 김샘님 (406 호, 28 일),  
김실비아님 (213 호, 7 일), 윤종원님 (105 호, 18 일)



코람 주민분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으시기를 희망합니다.



## 춘향전 바로 알기 시리즈 7 : 정보제공 민산 김정교님 (코람 312 호)

### 1987 년 시카고의 “춘향전과 나”

1986 년 시카고 한인 예술인협회 (회장 박정윤 첼리스트)가 창립되면서, 부회장으로 참가했던 손만성 (중앙대 연극영화학과 졸)의 주도로 전공자 서너명과 동호인들의 합심 참가하여 한인 연극영화 TV 협회 (회장 손만성 영화사업)가 탄생했다. 창립공연으로 “춘향전’을 택했는데, 마땅한 연출자가 없어 고심하다, 환도후 폐허된 명동 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음악감상실 “돌체”에서 자주 마주치던 박정윤 회장이 연극인 김정교를 알아보고 연출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이민 직후였고 미술협회 재창립에 협조하고 있었고 더욱이 상당기간 연극하고 멀리 하고 있던 처지라 사양했지만, 수차에 거친 부탁에 타의 반 자의 반으로 그 중대한 책임을 맡았다. 해방직후 재학중에 연극에 매료되 입문하게 된 작품도 춘향전이었고, 너무나 잘 아는 고전극이었기에 승락했다.

유치진작 미셀박 각색의 대본을 받고 연출 플랜과 일정표를 짜고 대본 아렌지부터 했다.

광한루장면에서 안수해(雁隨海), 접수화(蝶隨花), 해수혈(海隨穴)을 삼입, 무식한 방자가 안주해 술먹으라 하고 도령에게 강술먹지 말라고 하도라고 폭소를 자아내게 하고 또 물각유주라, 모든 물건에는 임자가 따로 있고, 사람에게는 인연이 따로 있는 법이다.

춘향과 이도령의 인연을 암시하고 고전극의 재미를 더했다. 한국에서 가져온 화선지에 춘향의 옥중편지는 붓으로 불망기, 일심, 금준미주의 칠언절구 는 연필로 연기중 직접 쓰게 마련하고 잔칫날 음식 등 여러가지 소품을 직접 만들었다.

무대장치는 사실주의 연극의 장치로서 회화적인 입체감과 원근법을 사실적으로 무대에 처음서는 연기자들을 도울수 있게 광한루와 동헌은 모로 단청을 하고, 부용당은 한옥의 전통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했다. 설계도, 평면도 등 장치 스케치를 보고 설명을 들은 연기자들은 사기 충천했다. 처음 백지에 그림을 그려 장치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프롬프터 없이 하니까, 대사를 완벽히 암기하여야 좋은 연기가 나온다고 독려했다. 한국에 주문한 의상 통관 문제가 생겼지만, 손회장의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도 했다. 전문적인 스태프 하나없이 전부 혼자 해야하는 처지인데, 단 한가지 분장만은 송혜숙 (미술학원 경영)이 맡았다. 무대감독을 끝으로 짐을 벗는 날, 막이 열리자 객석에서 우리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텅빈 작업장에서 새벽까지 혼자 모로단청을 그리전 피곤이 싹가셨다.

춘향이 옥중 장면에서는 눈물을 흠치는 관객이 여럿 보였다. 연기자들도 열심히 해주었다. 특히 1.5 세대 학생들의 카메오 출연이 고마웠다. 노력한만큼 호평이 있따랐다. MBC 뉴욕 특파원이 취재차와서 미주에서 초유라 감탄취재했는데, 한국방문 중이던 평통위원이 저녁뉴스에 시카고 “춘향전” 공연소식을 전하며 호평하는 것을 보고 우썃했다고 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한인문화회관에 내가 시카고에서 연극한 춘향전, 시집가는 날 (맨진사택 경사), 땡큐 하나님, LA 아리랑, 방자놀이의 녹취록이 비치 전시되 있습니다.

